

# HPAI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역대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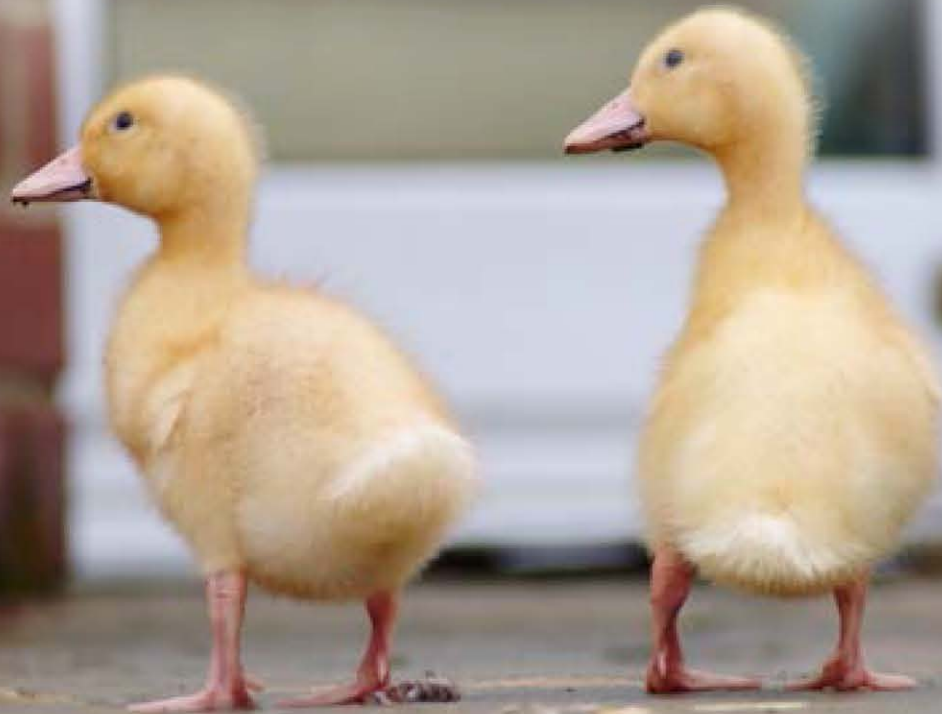
## 위기단계 관심 단계로 조정 취약대상 관리 지속 강화 필요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AI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이후 방역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5월 10일 위기단계 조정을 위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마지막 발생 이후 35일이 지났으며, 4월 7일 이후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가금·환경 검사 1만306건 모두 음성이 나왔다. 또한, 대다수의 철새가 북상하고 최근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결과 HPAI 항원이 미검출됐다.

이에 따라 전국(남양주 방역지역 이외)의 위기단계는 ‘심각’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과거 철새 북상 이후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발생 장기화 사례가 있었던 만큼 AI 지속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대상에 대한 관리와 발생 농장의 재입식 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위기경보 조정 이후 방역추진 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 토종닭·육계 및 전통시장

**토종닭·육계 농장** 지자체는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도축장만 출하)과 소독조치를 한다. 검역본부는 역학 관련 차량 및 농장 조사 후 해당 지자체 통보한다. 이어 지자체는 관련 농장·계류장(거래상인 차량 포함)·판매소 등에 대한 추적조사 및 소독조치를 하게 된다.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지자체는 항원 검출 판매소는 7일간 휴업 조치 및 가금 출하 농장, 계류장과 거래상인 차량에 대해 파악 후 소독한다.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 지자체는 항원이 검출됐던 계류장은 이동제한 및 7일간 휴업하고 소독한다. 또한, 계류장에 가금을 출하한 농장, 가금 판매소 또는 거래상인 차량을 소독한다. 해당 계류장에 가금을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는 정밀검사한다.

## 산란계·종계 등

발생농장 가금은 도축장 이외 출하가 금지되며 생산된 계란은 세척 및 소독 후 반출, 종란은 훈증소독 후 반출 가능하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농가 요청 시에는 검사 후 15일 이내 1회, 평소 월 1회 정밀검사한다.

차단 방역을 위해 발생농장은 알 운반 차량 농장 내 차량을 진입금지(외부 환적 실시)시키고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한다. 백신접종반상차반은 진입 전 신고해야 한다.

검사결과 양성농장에 대해 역학조사 및 소독조치를 시행한다. 역학조사는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14일 내 실시해야 하며 검역본부는 차량역학 시설 조사, 현장 역학조사는 시도 지자체가 한다. 역학 시설 소독조치는 지자체가 소독시행 명령에 따라 농장 출입 축산차량과 역학 농장, 도축장 및 축산시설(GP)에 대해 소독 조치한다.

가금 출하 후 재입식 사육시설(동별)에 대한 2주간 세척·소독 및 환경검사 음성판정 시 입식 허용하는 등 재입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가축방역관이 현장 시설점검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허용하게 된다.

발생농장에 대해 생석회 벨트 구축·점검, 전실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및 강화 갈아신기, 축사내 소독 등 소독실적을 농가에서 지자체 매주 보고하도록 한다.

### PART 1

## 저병원성 시 차단방역 대상별 추진 계획

위기경보 '관심' 단계 하향 조정 이후, 그간 강화된 방역조치를 완화하되 발생농장 사후관리 등 방역취약 대상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위기경보 단계 조정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상황실 운영이 중단되며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남양주시는 해당 농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 검사체계 조정

그간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상시예찰 체계로 전환하되 취약 축종인 오리농장 및 토종닭 농장은 검사는 강화 유지된다.

산란기금(산란계·종계·메추리)의 2주 1회 검사였던 것을 2월 1회와 출하 전으로, 출하 전과 2개월 1회 있던 육계농장의 경우 4개월 1회에 대해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종오리와 토종닭(2주 1회+출하전), 육용오리(2회+출하전)는 5월 말 이후 위험평가 후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검사에 대해서는 가금농장은 농장 정밀검사시 및 계류장·전통시장은 월 1회 실시하게 된다.

## PART2

### 위기경보 조정 (심각→관심) 이후 방역추진 계획

### 사후관리 강화

발생농장은 재입식 전 환경검사 및 점검, 입식시험 등 입식 단계별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예방적 살처분농장은 입식 전 환경검사 및 오리농장 사전 점검(검역본부)을 철저히 한다.

## 행정명령

그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발령한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3건(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은 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등)에 대해서는 해제, 행정명령 3건(가금농장 기자재 등 방역조치 요령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여 차단방역을 유지한다.

- 전통시장 산(生) 가금 유통시 사전 신고
- 백신접종팀 및 상차반 사전 신고제
- 동일 법인 기자재 등 공유 금지 등은 행정지시로 유지된다. 또, 가금농장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공고(3건)도 해제하되, 농가가 준수토록 지시됐다.

## 방역조치 조정

그 간 강화된 방역추진 사항에 대해 해제하되 취약요인 등 지속 방역조치가 필요한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이후 주요 방역조치」는 지속 유지된다.

일제출하는 현행 AI SOP와 같이 농장별 7일 이내로 적용한다. 육계·육용오리의 입식제한(14일) 기간 적용은 해제하되, 출하 완료 후 입식 전 청소·세척 후 입식한다. 민간 소독시설은 가전법령에 따라 소독시설 운영 및 차량·시설을 소독하도록한다. 6월 말까지 신규 입식하는 오리농장은 사전 입식 신고 시 지자체의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초생추·중추, 오리 유통 방역 강화 조치도 지속된다. 단, 휴업·소독의날을 6월 말까지 월 2회(2째, 4째 수요일)운영한다.

## 점검

가금 사육농장 및 축산시설 등에 대한 소독 실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검역본부는 발생농장 등의 입식 전 점검, 전통시장(계류장 포함) 및 오리농장 등 취약대상 및 민간 소독시설 운영 여부를 주1회, 또한 지역별(시·도) 주 1회 1개소 이상 점검을 추진한다.

지자체 전통시장은 개장 전·후, 방역차량 활용해 점검·소독을 실시하고, 입식 전 신고시 점검, 축산시설 소독시설 업소별 월 1회 이상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5월~9월동안 전국 가금농장의 방역 시설 보안을 위한 일제 점검계획은 별도로 추진된다.